

##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김 현 정

근로복지공단

함 경 애

연세대학교

이 동 훈<sup>†</sup>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적극적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한 실직자 275명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실직자의 적극적 대처방식이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성장과 가족탄력성 및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탄력성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 대처방식은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직자의 경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며, 그들의 가족탄력성이 높고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실직자, 가족탄력성, 적극적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

<sup>†</sup>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03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직업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생산적인 활동이자 개인이 지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자기실현 활동으로, 개인이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권석만, 2008). 따라서 직업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직업의 상실은 한 개인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넘어서 개인 삶의 여러 영역에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실직은 개인으로 하여금 수입, 자발적 교환관계, 소속조직, 그리고 일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박탈을 초래하며(김명언, 1998), 이는 기존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직자의 심리적, 인지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천희영, 2000). 그리고 실직자는 실직으로 인하여 분노, 좌절, 적대감,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며 신체화 증상을 겪기도 한다(McLoyd, 1989). 즉, 실직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 상실, 자아정체감 변화,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 안정감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인생의 중요한 위기사건이다(진은영, 2006).

또한 실직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건이다. 실직은 가족의 안정과 가족구성원의 응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가족체계 내 극도의 스트레스원으로 지각되어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부적응 및 가족갈등 및 폭력 등을 유발한다(조성희, 1999; Conger, Elder, Lorenz, & Simons, 1990). 이로 인하여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부부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적응적인 가족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가족해체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영순, 전임순, 2004). 이처럼 실직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그 결과 때로는 큰 심리적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Holmes와 Rahe(1967)은 실직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외상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실직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실직자와 그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직이라는 동일한 외상경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가족해체와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은 실직과 같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친밀한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등 삶 전반의 질적 변화를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서 외상과 외상경험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박혜원, 안현의, 2006). Tedeschi와 Calhoun(1995)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외상경험 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외상사건의 여파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써, 외상으로 인해 손상받기 보다는 이에 저항하는 능력 내지 개인의 기능 및 적응수준에 있어 개인에게서 관찰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최승미, 2008; Tedeschi & Calhoun, 1995, 2004). 즉, 외상 후 성장은 외상 경험 이후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며, 나타나는 변화에는 자기내면의 강점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자기지각의 변화, 타인에 대한 친밀감 및 신뢰 등

이 증가하는 대인관계의 변화, 인생의 목표와 가치 등이 바뀌는 인생관의 변화가 있다 (Maercker & Zoellner, 2004; Tedeschi & Calhoun, 1996). 또한 다양한 외상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의 실체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김진수, 서수균, 2011).

외상 후 성장 과정과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외상 후 성장의 예측 변인에는 외상의 유형 (McMillen & Fisher, 1998; Tedeschi & Calhoun, 1995, 1996), 외상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의 정도(Fontana & Rosenheck, 1998),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김보라, 신희천, 2010; 정인명, 최윤경, 2009), 외상 사건을 겪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Linely & Joseph, 2004; Pervin, Cervone, & Jones, 2005), 사회 인구학적 변인 (Millam, 2004;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5), 스트레스 대처방식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견숙, 2008; Bellizzi & Blank, 2006), 종교성과 영성성(박혜원, 안현의, 2006; Calhoun, Cann, Tedeschi, & McMilen, 2000; Schultz, Tallman, & Altmaier, 2010), 사회적 지지(신선영, 정남운,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하여 대부분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인지적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로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Zoellner & Maercker, 2006). 그리고 연구 대상자 집단이 가지는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에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적

인 변인 중심의 외상 후 성장 연구가 이루어져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적 함의나 적용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외상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직이라는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실직과 같은 외상의 경우 그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신건희, 1999; 조성희, 1999), 당사자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서양에 비해 관계중심적인 특성을 가진 우리 문화에서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체계의 특성은 개인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위기에 놓인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국내의 연구에서 주요 지지 자원인 가족의 지지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한인영, 이인정, 2011), 가족관련 변인을 감안한 외상 후 성장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련 변인 중 가족탄력성은 가족구성원의 결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지닌 가족이 체계간의 관계적 탄력성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기능적 단위로 적응하는 과정을 뜻한다(Walsh, 1998). 따라서 가족탄력성은 개인과 가족에게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도전과 역경 상황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의 발달과 회복

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armezy, 1991). 즉 가족탄력성은 외상사건으로 인한 가족체계 내 혼란에도 불구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이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직접 밝히고 있는 연구는 미흡하지만, 가족이 스트레스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빠르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들며 이는 가족스트레스의 인지수준을 낮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이희운, 박정윤, 2011). 그리고 박지현(2011)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자기 생성적인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에는 개인의 능력보다 가족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이 외상경험 후 외상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과 같은 가족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탄력성은 가족구성원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여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 요인을 긍정적으로 수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적 경험을 통제하여 스트레스 자체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탄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상희, 2005; 장경

문, 2003)를 통하여 가족탄력성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족체계의 탄력성에 따라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이희운, 박정윤, 2011; 최희정, 이인수, 2009), 외상에 대해 잘 대처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김유순, 이영분, 1998). 즉, 개인 및 가족체계의 특성과 자원 등에 따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는 양식이 달라지며 이는 실직자가 실직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오경자, 1998). 따라서 실직이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과 함께 다양한 대처방식들 중 효과적인 전략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도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키거나 재평가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인지·행동적 노력이다(Lazarus, 1993). 부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적응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윤재은, 1994).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표적으로 대처의 초점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 혹은 정서중심적 대처로 구별될 수 있고, 대처의 방법적 측면에서 통제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에 따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에 비해 더

적응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오지수, 1999).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상 경험 이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김희정 외, 2008; 최승미, 2008; Bellizzi & Blank, 2006),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로 이루어진 적극적 대처방식은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7; Maercker & Langer, 2001). 그리고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였으며(최승미, 2008), 대처방식이 적극적이면 스트레스 반응정도도 낮았다(윤예심, 2008). Arneli, Gunther와 Cohen(2001)은 문제중심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적응적인 대처군이라고 보고하였으며, Moore, Bombardier, Brown 및 Patterson(1994)은 문제중심적 대처가 정서중심적 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적응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형태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결과를 도출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외상 후 성장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아직까지 개인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룬 연구는 미흡하며 가족탄력성 수준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실직

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족탄력성이 그들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수준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증진한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그들의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직접효과와 동시에 실직자의 가족탄력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 다시 말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에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실직자의 가족탄력성, 적극적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매개변인으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 예측변인인 가족탄력성의 직접효과를 상쇄한 만큼 충분히 설명력이 있는지, 즉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기제 및 과정을 명세화할 수 있고, 또한 실직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담사가 어떤 매개변인에 집중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회관계의 철수인 실직이라는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위기가 곧 기회라는 긍정적 개념으로의 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 스트



그림 1. 연구모형

레스 대처방식 수준을 높여 외상 후 성장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지역 3개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Y지사를 방문한 실직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11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들 중 여자 51.6%, 남자 48.4%의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 분포는 30-39세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40-49세가 24.2%, 21-29세 18.9%, 50-59세 16.7%, 60세 이상이 8.7% 순이었으며 20세 이하는 1.1%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자 21.5%, 4년제 대학교 졸업 응답자 18.9%, 중학교 졸업이 9.5%,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2.2% 순이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비율이 53.5%, 종교가 없는 비율은 46.5%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결혼상태는 기혼

집단이 70.2%, 미혼 집단이 29.8%로 조사되었다. 현재 동거가족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2.9%로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응답한 자는 155명으로 전체 56.7%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구성원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율은 43.3%로 조사되었다. 생활수준은 51.6%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로 평가하였으며, 45.8%는 생활수준을 중으로 보고하였으며, 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실직 사유는 회사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개인의 질병, 정년퇴직, 직원 간 갈등 등에 해당하였다. 실직 이전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직이 22.2%(61명)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직이 16.7%(46명), 사무직 16.4%(45명), 단순노무직 13.1%(36명), 전문직 10.2%(28명), 기술직 8.7%(24명), 관리직 7.6%(21명), 건설업일용직 5.1%(1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실직한 기간은 2-3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3%, 4-6개월 27.3%, 1개월 이하가 16.4%, 1년 경과 14.5%, 7-9개월 7.2%, 10-12개월 3.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실직으로 인하여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의 수준을 7점 척도로 물어 본 결과 대상자가 실직 이후 현재 느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기술통계(N=275)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133(48.4)	실직 이전 직업	전문직	28(10.2)	
	여	142(51.6)		관리직	21(7.6)	
연령	20세 이하	3(1.1)		사무직	45(16.4)	
	21-29세	52(18.9)		단순노무직	36(13.1)	
	30-39세	83(30.2)		기술직	24(8.7)	
	40-49세	67(24.2)		서비스직	61(22.2)	
	50-59세	46(16.7)		생산직	46(16.7)	
	60세 이상	24(8.7)		건설일용직	14(5.1)	
교육 수준	초졸 이하	6(2.2)		실직 기간	1개월 이하	45(16.4)
	중졸	26(9.5)			2-3개월	86(31.3)
	고졸	132(48.0)	4-6개월		75(27.3)	
	전문대졸	59(21.5)	7-9개월		20(7.2)	
4년제 대졸 이상	52(18.9)	10-12개월	9(3.3)			
종교	없음	128(46.5)	1년 경과		40(14.5)	
	있음	147(53.5)	현재고통 지각수준*	보통 미만	25(19.1)	
결혼 상태	기혼	193(70.2)		보통	98(35.6)	
	미혼	82(29.8)		보통 초과	152(55.3)	
동거 가족	없음	47(17.1)	생활 수준	상	7(2.5)	
	있음	228(82.9)		중	126(45.8)	
가장 여부	가장	156(56.7)		하	142(51.6)	
	가장 아님	119(43.3)				

\* 설문지에서 현재 고통수준은 1점~7점 척도이며 1점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4점은 '보통이다', 7점은 '매우 고통스럽다'로 제시하였다.

끼고 있는 고통수준의 평균은 4.79로 조사되었 으며, 보통수준을 초과하여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55.3%로 가장 많았다. 실직으로 인하여 고통을 보통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35.6%, 보통미만으로 응답한자는 9.1%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0.9%가 실직 이후 보통이상 수준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구

### 외상 후 성장 척도

실직자의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를 개인이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의 Likert 척도(0점 '경험하지 못하였다'에서 5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K-PTGI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확인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확인되었다.

### 가족탄력성 척도

실직자의 가족탄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 및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001), 김안자(2005), 황철수(2005)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희윤과 박정윤(2011)가 수정·보완하여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세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의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희윤과 박정윤(2011)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3이며, 신념체계는 .81, 조직유형은 .86, 의사소통은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가족탄력성의 신뢰도는 .92, 신념체계 .79, 조직유형 .84, 의사소통과정 .92로 나타났다.

### 적극적 대처방식 척도

실직자의 적극적 대처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이장호와 김정희(1988)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장호와 김정희(1988)가 번안한 총 62문항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오수성과 신현균(2008)이 대처방식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5개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소에 스트레스 경험들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대처방식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Likert 4점 척도(0점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3점 "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총10문항으로 문제중심적 대처 5문항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1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오수성, 신현균과 조용범(2006)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3이며, 본 연구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실직자의 가족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실직자의 가족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실직자의 가족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

처방식 및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외상 후 성장은 가족탄력성 전체점수( $r=.58, p<.01$ ),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 $r=.53, p<.01$ ), 조직유형( $r=.47, p<.01$ ), 의사소통과정( $r=.47,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상 후 성장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r=.61, p<.01$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r=.62, p<.01$ )과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대처방식( $r=.43,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탄력성의 전체점수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r=.57, p<.01$ ),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r=.60, p<.01$ )과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대처방식( $r=.38,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r=.52, p<.01$ ),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r=.58, p<.01$ ),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대

처방식( $r=.32, p<.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r=.51, p<.01$ ),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r=.51, p<.01$ )과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대처방식( $r=.37, p<.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탄력성의 의사소통과정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r=.50, p<.01$ ),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r=.52, p<.05$ )과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대처방식( $r=.34,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단계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먼저 1단계에서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이 매개변인

표 2. 가족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N=275)

	1	2	3	4	5	6	7	8
1. 외상 후 성장 <sup>2)</sup>	-	.58**	.53**	.47**	.47**	.61**	.62**	.43**
2. 가족탄력성 <sup>3)</sup>		-	.87**	.88**	.91**	.57**	.60**	.38**
3. 신념체계			-	.68**	.67**	.52**	.58**	.32**
4. 조직유형				-	.71**	.51**	.51**	.37**
5. 의사소통과정					-	.50**	.52**	.34**
6. 적극적스트레스대처						-	.90**	.86**
7. 문제 중심적 대처							-	.54**
8. 사회적지지 추구								-

<sup>2)</sup>외상 후 성장 총점, <sup>3)</sup>가족탄력성 총점, \*\* $p<.01$ .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모든 변인들을 같은 방정식에 투입이 되었을 때, 이러한 관계들이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감소하여도 유의하다면 부분매개를, 완전히 유의성이 사라진다면 완전매개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가족탄력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외상 후 성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외상 후 성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제한 후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모든 단계의 검증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탄력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

처방식( $F=129.08, p<.001$ ) 및 외상 후 성장( $F=132.17,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상 후 성장( $\beta=.42, t=7.57,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제했을 때, 가족탄력성( $\beta=.33, t=5.92, p<.001$ )은 1단계에서의 가족탄력성( $\beta=.57, t=11.36, p<.001$ ) 보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전체 설명력은 1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통제되었을 때 가족탄력성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에 수반될 수 있는 간접효과와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가족탄력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

표 3. 가족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외상 후 성장의 중다회귀분석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 <sup>2</sup>	F	B	SE	β	t
1	외상 후 성장	가족탄력성	.32	129.08***	15.57	1.37	.57	11.36***
2	적극적 대처방식	가족탄력성	.33	132.17***	1.16	.10	.57	11.50***
3	외상 후 성장	가족탄력성	.44	106.53***	9.00	1.52	.33	5.92***
		적극적 대처방식			5.67	.75	.42	7.57***

ΔR<sup>2</sup> = .12

\*\*\* $p<.001$

효과( $\beta = 3.781$ , 95% Bias-corrected CI = 1.960 ~ 6.67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단계 중 3단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탄력성( $\beta=.33$ ,  $t=5.92$ ,  $p<.001$ )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실직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두고 실직자의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직자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하지만 여전히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상 후 성장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신건희, 1999; 조성희, 1999), 주요 지지 자원인 가족의 지지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한인영, 이인정, 2011)와 일관적이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실직이라는 외상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문제상황을 평가

하며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은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주고 받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가족이 지닌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적응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희정과 이인수(2009)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희윤과 박정윤(2011)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외부도움 추구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상희, 2005; 장경문,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지니며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을 수용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강한 신뢰와 결속감을 가질수록 문제중심적이고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셋째, 적극적 대처방식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과 긍정적인 재해석을 포함하는 문제-중심 대처(Armeli et al., 2001; Evers et al., 2001; Maercker & Langer, 2001)와 사회적지지 추구를 포함하는 정서-중심 대처(Maercker & Langer, 2001)가 외상 후 성장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더불어 최승미(2008)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의 대응방식이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소극적 철수 및 자기비판

등 비효과적 대처방식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높고, 긍정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수림, 2013)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이 회피적이고 정서조절적인 형태의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예측변인인 가족탄력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제했을 때 예측변인인 가족탄력성은 준거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드물었으나, 실직자에게 있어서 가족탄력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외상 경험 이후 적응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가족탄력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Calhoun과 Tedeschi(2006)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외상 후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 경험 이후 실직자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하나로써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실직 이후의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보고한 노혜련(2000)의 연구에서처럼 실직자와 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실직 이후의 회복과 성장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제시되어 온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을 촉진(김희정 외, 2008; 최승미, 2008; 최승미 외, 2013; Armeli et al., 2001; Evers et al., 2001; Maercker & Langer, 2001)하여 결과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희정과 이인수(2009)과 이희윤과 박정윤(2011)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위도움 추구 행동과 같은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가족탄력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가족탄력성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여기서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실직이라는 역경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가족 간의 긍정적 신념으로 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 이는 역경으로 인한 변화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직이라는 외상에 개인과 가족의 적응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탄력성이 실직이라는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가족탄력성의 요소 중 극복할 수 있다는 가족통제감의 신념과 긍정적 시각은 역경의 상황에서 가족이 불굴의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간에 용기와 격려를 주고 희망을 유지하며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상황을 직면하고 인지적 문제해결, 의사결정, 정보수집, 시간관리, 목표수정 등과 같이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동에 초점을 두어 대처함으로써 실직이라는 외상으로 인해 좌절하기 보다는 한계를 수용하고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상 경험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등 가족체계의 탄력성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자의 가족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실직자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을 증진시킬 때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실직자의 경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며, 그들의 가족탄력성이 높고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직이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외상 중 하나이지만 실직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가족탄력성의 관점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직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 이는 기존의 실직과 실직자에 대한 문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외

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의 주요 변인으로 가족탄력성과 같은 가족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 후 성장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체계의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외상 후 성장의 예측변인으로 도출하여 관련 연구를 확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한다는 연구들은 많이 보고된 바 있지만, 가족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직을 비롯한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외상으로 인한 부적응적 결과를 감소시키고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족 내 탄력성 증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직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실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의 변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념 형성과 긍정적 시각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제공과 실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표집에서 부산과 경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연구대상자가 고용센터 등에 찾아온 방문자들이며 고통 수준이 보통을 초과한 다는 이들의 비율이 55.3%여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표본의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는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직을 충분히 외상으로 느끼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직자가 인지하는 가족탄력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조사응답자의 주관적인 지각이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는 가족탄력성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외상경험을 한 개인 외 다른 가족구성원 또한 조사에 포함시켜 가족탄력성을 측정하는 등 연구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탄력성이 실직을 비롯한 다양한 외상 경험 집단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명언 (1998). 경제불황의 심리적 영향: 조직감량의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집행자.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97-148.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9-40.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4(1), 139-170.
- 김유순, 이영분 (1998).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263-288.
-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건축 (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 노혜련 (2000). 실직자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5), 155-183.
- 박지현 (2011).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229-257.
- 박혜원, 안현의 (2006). 외상 후 증상, 영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1), 201-214.
- 신건희 (1999).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 369-392.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93-214.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 오경자 (1998). 경제불황의 심리적 영향: 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67-95.
-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59-75.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 건강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오지수 (1999). 실직에 대한 대처반응과 그 관련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예심 (2008).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사건충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재은 (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대처 방법: 특수목적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영순, 전임순 (2004). 아버지 실직가정의 가족관계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4), 1247-1265.
- 이장호, 김정희 (198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 25-45.
- 이희운, 박정운 (2011).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69-192.
-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련.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정인명, 최윤경 (2009).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278-279.
- 조성희 (1999). 실직 가정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3(1), 139-166.
- 조옥희, 김경신 (2005).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관련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개인, 가족, 직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29.
- 진은영 (2006). 실업에 대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자살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 (2000).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8(7), 103-116.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인지적, 문제해결적 행동 대처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3(2), 307-328.
- 최희정, 이인수 (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75-194.
- 한인영, 이인정 (2011). 암환자의 외상후성장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2), 419-441.

- 황철수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rmeli, S., Gunther, K. C., & Cohen, L. H. (2001). Stressor appraisals, coping, and post-event outcomes: The 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66-39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1173-1182.
- Bellizzi, K. M., & Blank, O. B. (2006). Predicting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Psychology, 25*, 47-56.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en, J. C.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521-52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Lawrence Erlbaum.
- Conger, R. D., Elder, G. H. Jr.,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Evers, A. W. M., Kraaimaat, F. W., Van Lankveld, W., Jongen, P. J. H., Jacobs, J. W. G., & Billsma, J. W. J. (2001). Beyond unfavourable thinking: The illness cognition questionnaire for chronic disea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1026-1036.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ontana, Y., & Rosenheck, R. (1998). Psychological benefits and liabilities of traumatic exposure in the war zon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 485-505.
- Garmezy, N. (1991).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Holmes, D. S.,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34.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aercker, A., & Langer, R. (2001). Posttraumatic personal growth: Validation of german version of 2 questionnaires. *Diagnostics, 47*, 153-162.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 41-48.
- McLoyd, V. C. (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American Psychologist, 44*, 293-302.
- McMillen, J. C., & Fisher, R. H. (1998). The

- perceived benefit scales: Measuring perceived positive life changes after negative events. *Social Work Research*, 22, 173-187.
- McMillen, J. C. (1999). Better for it: How People benefit from adversity. *Social Work*, 44, 455-468.
- Milam, J. E. (2004). Posttraumatic growth among HIV/AIDS pati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1), 2353-2376.
- Moore A. D., Bombardier, C. H., Brown, P. B., & Patterson, D. R. (1994). Coping and emotional attributions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1), 39.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6.
- Pervin, L. A., Cervone, D., & John, O. P. (2005).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9th)*. New York: Wiley.
- Schultz, J. M., Tallman, B. A., & Altmaier, E. M. (2010). Pathways to posttraumatic growth\_The contributions of forgiveness and importanc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 104-11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Walsh, F. (1998).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3), 269-271.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The Guildford Press: New York.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원 고 접 수 일 : 2014. 05.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7. 15  
게 재 결 정 일 : 2014. 08. 02

##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The Job Losers

Hyeon jeong Ki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Kyong Ae Ham

Yonsei University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job losers. A sample of 275 job losers(133 men, 142 women) who visited government unemployment service centers at Busan and Gyeongnam region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scales including 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K-PTGI), Family Resilience Scale,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Scale were implemented by participant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positive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and between active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growth respectively. Second, active coping strategie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losers' family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job loser, family resilience, active coping strategies, post-traumatic growth